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22년 3월 21일 그린라인 유니온스퀘어 연장선의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찰리 베이커 주지사를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요 정치인들이 리본을 자르고 있다. 12월에는 텡스대 메드포드 연장선이 개통됐다

신축 그린라인 연장선, 1년도 안돼 걷는 속도로 운행

서행구간(Slow zone) 수리공사 할수록 더 늘어나는 기현상
안전 점검 부서 경험과 훈련 부족, 결함 측정 결과도 못읽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침 단산업의 선구적 도시인 보스톤의 전철이 신축한지 1년도 안돼 철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해 충격이다.

신축 그린라인 구간은 유니온 스퀘어까지 2022년 3월에 개통했으며 메드포드까지의 구간은 지난해 12월에 개통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달간 선로 결함 수리를 위해 운영을 전면

중단했었으며 약 1마일에 달하는 구간에서 시속 3마일로 운행,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운행하고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MBTA가 보여주는 일련의 문제점에 더해 이번 신규 전철구간의 결함은 교통공사의 허술한 운영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MBTA 조 폐사투로 ▶▶7면으로 계속

부양가족당 \$310 세금 크레딧, 주 의회 마침내 10억달러 감세안 타결

하원 27일, 상원 28일 표결, 주지사 서명 확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납세자 가족들에게 세금크레딧을 주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세안이 무려 2년만에 최종 타결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감세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도 회기연도부터 주내 납세자들에 5억6천1백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10억 2천만달러에 달하는 감면을 제공한다.

이번 법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싼 생활비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점차 늘고 있는 타주 이주를 막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감세안이다. 무려 2년간의 밀실협약의

▶▶7면으로 계속

KJS
LAW OFFICE
KIJU JOSEPH SUNG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21기 상건례 가져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오은의 평통간사, 편집부 =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문수)는 지난 9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보스턴 한인교회 ECC Chapel에서 21기 자문위원 상건례를 개최했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보스턴 협의회를 발전시켜온 평통 선배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21기는 한인사회 속에서 보람된 시간을 함께 하며 자랑스러운 평통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위한 보스턴 Big Tent를 개최 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며 소통의 부재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는 즐거운 평통, 함께 하고 싶

은 평통을 만들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홍순복 부총영사는 “21기에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됨이 기쁘다” 고 밝히며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한국문화를 잘 소개하길 바라고 공간에서 잘 서포트하겠다” 고 격려의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참석한 40여명의 자문위원 소개가 있었고 올해 신입 위원으로 위촉된 정문철 박사는 “평통 위원으로서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한순용 (보스턴 한미노인회장)위원은 “자랑스러운 보스턴 협의회로 발전 되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한문수 회장은 민주평통을 소개한 후 협의회 각 분과 임원선임안,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은희 간사는 “오는 10월 19일 있을 출범식 진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출범식은 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며 자문위원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자문위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인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글로벌 한인 인재들로 구성되었다.

한인회 케이페스티벌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10월 16일 캐슬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백일장 및 사생대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11시부터 시작해 1시 30분에 시상까지 마친다. 주최 측은 예년의 경우 어린이들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 했던 것을 고려해서 일찍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행사 당일 공지한다. 대상은 \$300의 상금, 우수상 2명에게는 \$50의 상금, 장려상 3명에게는 \$25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들은 개인 의자 또는 돛자리 등 그림을 그리기나 글짓기하기에 편한 도구를 준비하면 된다. 필요한 나머지 모든 재료는 한인회에서 준비해 배포한다.

글짓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1쪽, 고교생은 2쪽 분량이어야 한다.



그림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만 참가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글짓기의 경우 장승모 BC 커뮤니케이션 교수, 미국인 영어전공 작가인 Jenn, 그리고 MIT 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기대회는 오애련 한인회 이사(호기심 테이크어 원장)와 권정철 미술학원 원장이 심사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내 한인 1백50만명 10년새 6% 증가에 그쳐

아시아계 중 중국계는 31.6% 증가 4백12만여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1,508,575명으로 지난 2010년 1,423,784 명에 비해 6% 증가했다.

2020년 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미국내 아시아인 중 인도계 미국인은 무려 50%가 증가해 4백 39만여명으로 중국계를 추월해 미국내 아시아계 중 인구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계도 만만치 않은 31.6%가 증가해 4백12 만여명의 인구를 기록했지만 인도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내 아시아인 인구의 3위는 필리핀계 아시아인으로 307만여명이 미국에 거주했다. 필리핀계는 지난 10년간 20%가 증가했다. 4위는 베트남계로 10년새 26%가 증가한 195만여명

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위는 한국이 차지했으며 6위는 일본으로 2020년 3.2%가 감소한 74 만여명이 거주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증가세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한인들의 미국내 집중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한인의 28.3%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다. 그 다음은 뉴욕 8.1%, 텍사스 5.9%, 뉴저지 5.5%, 워싱턴 5.1% 순이었다.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이 거주했고 그다음은 뉴욕 순이었다.

hsb@bostonkorea.com

니치 선정, 매사추세츠 최고 공립고교 상위 25개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교육 플랫폼인 니치(Niche)가 2024년 미국내 우수 공립학교 순위를 발표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우스터의 아카데미포 매스앤사이언스(전국 3위), 렉싱턴 고교(87위), 웨스턴 고교(97위) 3개교가 상위 100위에 포함됐다.

올해로 9년째 최우수고교를 선정하고 있는 니치는 시험성과, 학업성취도에만 집중해서 선정하는 다른 학교 순위와 달리 학생,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평가 그리고 미 교육부의 교사, 교육자원, 교육시설 등의 평가 등을 더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니치는 위의 평가기준을 통해 미국내 94,058개 공립고등학교와 30809개의 사립학교 그리고 12,192 개의 학군의 데이터를 집계해 순위를 정했다.

니치는 학교순위 선정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학교와 타운 등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얼마전 미국 고교의 순위를 선정, 발표했던 언론사 유에스뉴스는 총 2만5천여 고등학교를



AP, IB 시험 성적을 통한 대학준비도, 각주별 학력평가 졸업후 합격 성취도, 주별학력평가 성적, 흑인라티노저소득층 성적, 대학커리큘럼채택정도, 졸업율, 6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니치가 선정한 매사추세츠 탑 25개 우수 고등학교다.

1. MA Academy For Math & Sciences, Worcester
2. Lexington High School
3. Weston High School
4. Boston Latin School
5. Brookline High School
6. Newton North High School
7. Belmont High School
8. Hopkinton High School
9. Newton South High School
10. Wellesley High School
11. Sharon High School

12. Westborough High School
 13. Wayland High School
 14.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15. Lincoln-Sudbury Regional High School
 16. Concord-Carlisle High School
 17. Westford Academy
 18. Winchester High School
 19.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20.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21. Needham High School
 22. Cambridge Rindge & Latin School
 23.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24. Westwood High School
 25. Shrewsbury High School
-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언더그라운드 밴드 음악 풍성한 서머빌 흥크페스티벌

디딤돌 교회 쿠키와 음료 판매 수익으로 매사추세츠 난민 도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언더그라운드 밴드들과 풀뿌리 사회운동단체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는 서머빌 (Somerville) 흥크 페스티벌 (Honk Festival)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15개의 언더그라운드 밴드들과 30여개의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축제는 올해로 17년째를 맞게 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들을 서머빌 곳곳에서 벌여진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Honk Festival 퍼레이드이다. 10월 8일 오후 12시 텃스대학(Tufts University)이 위치한 데이비스스퀘어 (Davis Sq)에서 시작하여 하버드스퀘어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에는 경제정의, 환경보호, 세계평화, 인종차별 등 다양한 진보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지역 사회 단체, 예술가, 활동가들이 퍼레이드에 합류한다.

이 퍼레이드는 서머빌과 케임브리지, 보스톤 기반 자발적 풀뿌리 사회단체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클래식(동유럽 유대인 전통 음악), 아프로비트, 힙합, 그리고 뉴올린스의 다양한 음악을 카니발과 마스그라스의 정신과 접목시켜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 밴드들도 참여한다.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이 무료로 공연하는 이 밴드들은 '공적 공간'을 되찾기 위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비스스퀘어에 위치한 한인 교회 디딤돌 교회 (www.stepstonechurch.com)는 매해 흥크페스티벌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일요일에 쿠키와 음료수 등을 팔아 사회정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해 왔었다.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각 타운에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 자금이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보스톤은 진보 운동과 활동적인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소개한 디딤돌 교회 이화정 전도사는 "미국의 다양한 사회, 정치적 문제에 보스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진보적인 사고와 활동의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이번 흥크 페스티벌 퍼레이드를 보면서 그 진수를 맛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 세 한 정 보 : <https://honkfest.org/2023-festival/>



파워볼 잭팟 9억3천만달러, 30일 추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0일 추첨하는 파워볼 잭팟이 9억 2천5백만달러로 치솟았다.

최근들어 파워볼과 매가밀리언스 잭팟이 10억달러를 넘어가는 경향을 반영하듯 이번 잭팟도 1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27일 추첨번호는 1,746,47,63이었고 파워볼은 7번이었다.

파워볼은 지난 7월 19일 이래 30번의 추첨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파워볼의 당첨 확률은 메가밀리언스보다는 약간 높은 2억 9천220만분의 1이다. 2볼짜리 한

장을 사든, 2백볼을 들여 사든 확률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적어도 한 장은 있어야 당첨확율이 그나마 존재한다.

사상 최대 잭팟은 20억4천만달러로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당첨됐다.

8억5천만달러 당첨금을 일시불 지급으로 선택할 경우 약 4억3천2백만달러에 달한다. 이후 연방 및 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파워볼에는 45개주 그리고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미 버진아일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제10회 한미예술협회 전시회, 이종국 작가 초대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숙,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연례미술전시회가 오는 10월 7일(토)부터 22일(일)까지 렉싱턴에 위치한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에서 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한지 공예가인 이종국 작가를 초대하여 “종이 뜨기, 씨앗 뿌리기, 환경 고려하기(Making Paper, Sowing Seeds, Considering Environment)” 라는 제목으로 그의 작품을 선보인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마불 갤러리의 대표인 이종국 작가는 직접 키운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어 공예품을 제작하는 자연예술가이다. 또한 대나무와 갈대와 같은 다른 자연 소재들을 활용하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지로 유명했던 청주 벌타마을이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한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전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가가 그곳에 이사오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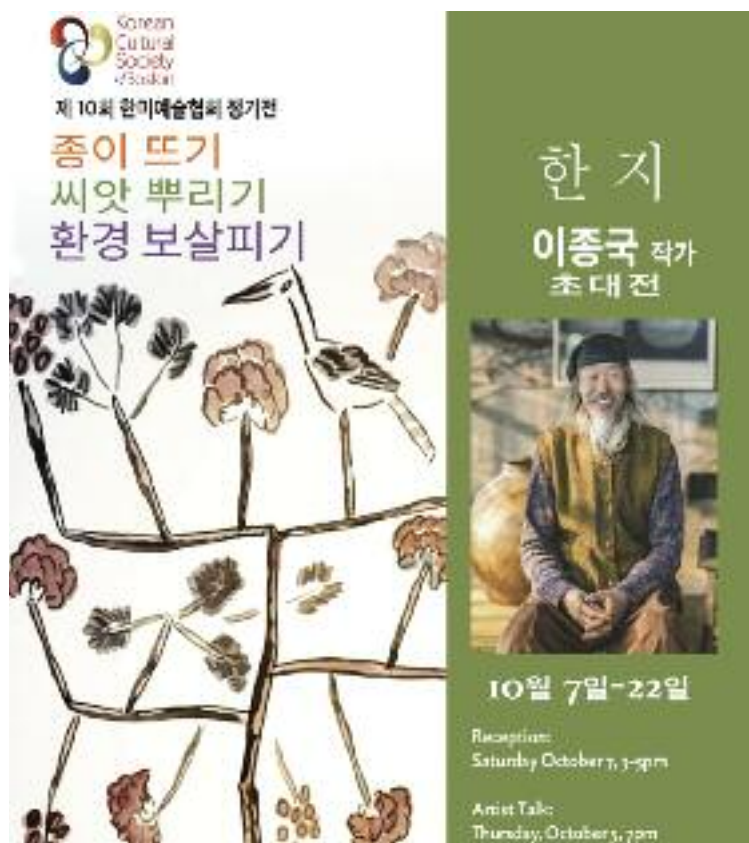
작가가 한지에 빠져든 이유는 한지를 만드는 과정과 한지 자체가 자연을 닮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물체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을 그것과 함께 보내며, 그것을 관찰하고 천천히 그것에 몰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나무를 키우고 껍질을 벗기고 불려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공생을 의미한다.

이종국 작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 자원을 어떻게 예술 작품과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한다. 작가는 계절별로 수집할 수 있는 재료의 특성과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하며, 자연스럽게 다시 자연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작 접근법은 현재의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의 응답이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직접 만든 한지에 그린 그림, 병풍 및 다양한 재료로 만든 소형 수제 3D 작품들과 두 명의 다른 예술가와 협력한 야외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10월 7일(토) 오후 3시-5시에 리셉션이 있다.

〈전시회 정보〉
제10회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전시회
이종국 작가 한지 작품전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시 기간: 10월 7일(토) - 10월 22일(일)
운영 시간: 월요일 휴관,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관련 행사〉
10월 5일(목): 아티스트 토크 (오후 7시 30분, Lexington Arts & Crafts)
10월 6일(금): 한지 부채 만들기 워크숍(오후 1시 30분-4시, Lexington Arts & Crafts, 등록 필요)
10월 7일(토): 한지 나비와 브로치 만들기 - 어린이 워크숍(오전 10시-낮12시, Concord Free Library, 등록 필요)
10월 7일(토): 리셉션 (오후 3시-5시, Lexington Arts & Crafts)



브루클라인에서 승용차가 그린라인 전철 들이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 승용차가 25일 밤 MBTA 그린라인 전철을 들이받아 MBTA 그린 C라인 전철이 셔틀버스로 대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용차는 빨간불인 상태임에도 그린라인 전철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해 전철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목과 허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약 25분이나 지연되는 혼란을 겪었다. 승객들은 저녁 7시께부터 밤 9시 30분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했다.

이 승용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티켓을 받부 받았다.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학식 개최

김총영사 방문, 학부모와 교사에게 감사전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최대 규모의 한국 학교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가 23일 개학식을 갖고 2023학년도 가을 학기를 시작했다. 신임 김재휘 총영사는 개교 48년째를 맞는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현아 리더교사의 사회, 최서경 차세대 교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개학식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국가제창팀(지도 양수연 리더)과 현악팀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남일 교장과 양원미 학부모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특별히 김재휘 총영사 부부,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부회장,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 등 대내외의 귀빈들을 모시고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학교를 방문한 김재휘 총영사는 “새학년을 시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및 선생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린다.” 고 말하고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한국학교에 데려오신 부모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한국학교는 자녀분들께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학교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50년동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김총영사는 “48개 학급의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힘든 일이 많으실텐데 총영사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성인 한글반에 등록한 한인 2세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저는 시민협회 부회장이지만 또한 오늘부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성인반 학생” 이라며 “가나다라마바사’ 를 큰 소리로 외워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 “오늘 개학식에 김재휘 총영사께서 와 계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 장차 총영사, 주의회 의원과 연방의원이 나올 것이며 더 나아가 첫 번째 한국계 미국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믿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자” 며 축하인사를 전하자 참가자 모두 박수로 화답했다.

재학생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며 개학식을 마쳤다.

김재휘 총영사는 개학식 참석에 앞서 미술반과 서예반의 작품전시회 관람 후 학생들의 수업도 둘러

본 후 학부모회 대표들과 동포 2세 교육을 위한 의견을 듣고 총영사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답소를 나누었다.

개학 첫날 학부모들은 학급 교실 유리창을 통해 어린 자녀의 교실에서의 모습 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였다. 기초-1과정에 입학한 한 신입생 학부모도 “첫 아이이고 학교는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다.” 고 말하고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반 및 1-2과정 (리더 김희현 교사), 기초3-4과정 (리더 이성희 교사), 초급1~3과정 (리더 주민정 교사), 중급1~3과정 (리더 김소희 교사), 고급1~3과정 (리더 류민희 교사), 세종1~6과정 & 성인1~2반(리더 박춘아 교사), 작문교육1~4부(리더 이정설 교사), 문화교육부(리더 양수연 교사) 8개 교육과정과 보조교사회 및 교지편집부(리더 박현아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남일 교장은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의 재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대상 교양강좌들과 서예반, 생활영어반 등으로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



김재휘 총영사가 23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시민협회 부회장이자 성인반 학생으로 등록한 린다 챔피언



기초2 거북이반 수업모습

할 계획이다.

48년의 긴 역사와 전통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0월 28일부터 2주간 개최되는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이어서 11월 중순에는 한글 동화구연 & 동시암송대회, 12월 말에는 제 22회 '꿈을 그린 노래대회'를 개최한다.

한글교육과 다양한 문화-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글교육부문은 물론 미술 및 음악교육 교사를 지원한 한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9iriTX-hQfvuD49vy6>), 학교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로 연락하면 되고 자세한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방문할 수 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신축 그린라인 연장선, 1년도 안돼 걷는 속도로 운행

▶▶1면에 이어서

(Joe Pesaturo) 대변인은 새로운 서행구간 (slow zone)은 메드포드 노선에 11개가 있으며 유니온스퀘어 노선에는 3개가 있다고 밝혔다. T는 최근 선로 검사 과정에서 많은 곳에서 선로가 너무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을 발견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면 탈선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선로는 닳아서 노후하면 너무 벌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좁아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뉴욕 소재의 열차선로사고재구성 전문회사인 아이언우드 테크놀로지 전문가 로버트 할스테드씨는 선로가 좁은 것은 40년 경력상 아주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메드포드 선로는 처음 개통 당시부터 조금 좁다고 여겨졌지만 이로 인해 열차속도를 아주 줄여야 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T측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를 파악하는 안전 기하학적구조 스캔을 3월에 실시했을 때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6월에 실시했을 때 결함이 발견됐다. 9월달 실시된 스캔에서는 메드포드 노선과 유니온스퀘어 노선에서 더 많은 결함이 발견됐다.

그린라인 연장선 새로운 구간은 지난 6월 주말마다 노선 수리를 위해 운행을 중단했었으나 현재는 더 많은 문제점만 발견된

상태다. 리치머에서 메드포드 텡스대까지의 구간은 한달 전보다 10분이 더 오래걸리고 있다.

T측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맥그레스 하이웨이 교각 수리를 위해 닫는 기간 동안 3개의 서행구간을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메드포드 노선의 11군데 서행구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금껏 MBTA는 서행구간을 빠르게 제거하기 보다는 점차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린라인 전체 구간 중에서 T는 18개의 서행구간을 늘렸으며 과거 서행구간 중 한 곳만 수리를 마쳤다.

외부 전문가들은 T에서 지하철 하부구조의 결함을 점검하는 유지보수부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아주 위험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보수부서 근로자들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지보수부서의 직원들은 2022년 하반기, 2023년 1사분기에 실시됐던 안전 기하학적구조 스캔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읽지 못했었던 것을 전문가들은 발견했다. 스캔에서 발견됐던 이들 결함은 바로 수리에 들어가거나 수리 시까지 서행구간으로 지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캐런 스피카 상원의장(사진 왼쪽부터 2번째)이 말을 건네고있다. 좌측부터 모라 힐리 주지사, 스피카 상원의장,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 데브라 골드버그 재무장관

부양가족당 \$310 세금크레딧, 주 의회 마침내 10억달러 감세안 타결

▶▶1면에 이어서

논쟁을 거쳐 마침내 공개된 것이다

하원은 이번 최종합의안을 수요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상원은 목요일 표결한다. 이후 모라힐리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번 감세안을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의회의 타결을 이끌었기에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의회는 유산세의 한도를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끌어 올렸다. 미국내에서는 12개 주만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레곤주와 매사추세츠 주만 1백만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또 2백만 달러가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절벽효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들 중 렌트를 하거나 집을 소유한 경우 세금 크레딧을 \$1,200에서 \$2,400로 증액했다. 또한 렌트 생활자들의 세액감면 금액을 현재 \$3,000에서 \$4,000로 올렸다. 더불어 저소득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크레딧(EITC) 금액도 연방 크레딧의 30%에서 40%로 증액했다.

또한 의회는 자녀 및 부양가족 크레딧을 만들어 자녀와 부양가족수에 상관없이 첫째 부양가족당 \$310씩 크레딧을 지급하며 2년째부터는 \$440로 인상한다. 이 같은 부양가족 크레딧은 미국내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상원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저소득 주택개발인센티브프로그램의 크레딧 한도를 현재 \$1천만달러에서 \$5천7백만달러로 올렸다.

또한 보유기간 1년 이내에 사고파는 주식,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단기 자본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12%에서 8.5%로 낮췄다. 당초 하원은 5%를 제안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혼한 부부는 매사추세츠 세금보고시 부부가 같이 공동(joint)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해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백만장자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감세안의 통과가 지연된 것과 관련 캐런 스피카 상원의장은 지금껏 “언제 감세안이 통과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힐리 주지사는 상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하고 “주지사 선거 공약이 감세안이었다”고 말하고 “임기 초부터 약속했는데 9개월 후에 마침내 포괄적인 감세안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다만 고소득자의 타주 이주를 막고 친 기업 환경 조성을 바랬던 재개는 이번 감세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며, 반면 더 많은 저소득자 세금 크레딧을 바랬던 진보측도 저소득 감세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연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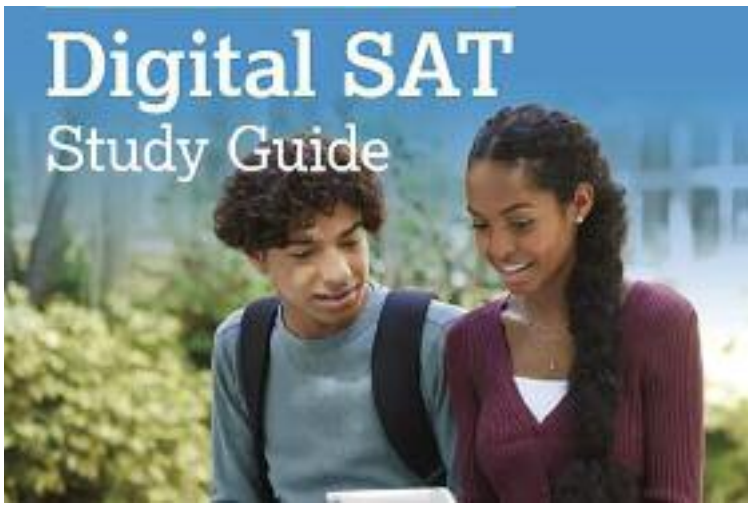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디지털 SAT가 미국 대학 입시에 가져올 새로운 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문서연 인턴 기자 = 올해 10월부터 미국에서는 디지털 PSAT 시험이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SAT의 디지털 시험 전환을 앞두고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22년 칼리지보드는 2024년 3월부터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치러지는 디지털 PSAT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험을 치르는 방식뿐만 아니라 시험문제 출제 방식도 컴퓨터 시험에 맞춰 변화해 미리 준비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종이 시험을 유지해오던 SAT가 디지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SAT만 예외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ACT는 지난 2016년부터 디지털 시험을 제공해왔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칼리지보드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종이시험 SAT를 포기하고 디지털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유연성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SAT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험을 보는 것을 더욱 쉽게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볼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하게 된다는 얘기가.

칼리지보드는 굳이 정해진 시험 날짜에 시험장을 찾을 필요 없이 향후 디지털화 된 시험방식으로 주, 학군, 학교별로 각자 사정에 맞게 “SAT School Day” 를 선택해 시험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SAT에 대한 참여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디지털 PSAT는 과거처럼 거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다만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이나 학교에서 제공한 크롬북을 통해 시험을 본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들은 시험 전 각자의 기기에 Bluebook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디지털 SAT 시험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다.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미국 고등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리딩 영역의 지문이 이전의 페이퍼 SAT보다 확연히 짧아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쉬울 것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수학 영역에서는 모든 문제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험 결과를 며칠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 또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전 페이퍼 SAT는 시험 결과를 몇 주가 지나야 알 수 있

었기에 재시험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SAT는 며칠 내로 퍼센타일과 등수를 포함한 상세한 분석 자료와 함께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반가워 하는 학생들이 많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개인이 가져온 기기로 시험을 보는 만큼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인터넷 연결이나 기기의 충전여부에 따라 개인의 시험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종이 SAT문제를 대비해 준비를 해왔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SAT의 디지털 전환에 당황스럽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칼리지보드가 2022년 시험방식의 전환을 발표한 후부터 올해 10월 디지털 PSAT를 시행할 때까지 디지털 SAT를 준비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SAT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다면 당장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11학년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에 다가올 첫 PSAT 시험이 앞으로의 디지털 SAT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깨뜨린 레드라인 지하철 유리창

청소년들 레드라인서 아시안계 여성과 남성 괴롭혀, 승객들 협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5명의 청소년들이 21일 밤 11시께 레드라인 다운타운 크로스역에서 아시안계 여성과 남성을 괴롭히고 승객들에게 금품을 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MBTA 경찰 리차드 설리번 경찰서장은 애시몬트행 레드라인 열차에서 밤 10시 45분 청소년들이 행패를 부렸다고 발표했다. 괴롭힘을 당한 아시안계 여성은 25세였으며 남성은 약 55세에서 60세 정도였다고 설리번 서장은 밝혔다.

한목격자는 이 청소년들이 아시안 여성에게 접근해 아시안이라고 놀렸으며 그 여성의 출신국을 두고 비난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안 액센트를 흉내 내기도 했다. 일부 승객들에게는 금품을 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철의 다른 곳에 승차한 아시안 남성에게도 출신국가를 비하하는 욕설을 퍼부었으며

전철의 유리창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

설리번 서장은 난동을 부린 청소년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15- 17세 정도의 청소년들이며 형사들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서장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을 모두 체포할 것이며 달게 처벌을 받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장은 또 서퓸카운티 지검 케빈 헤이든 지검장과 상의해 이들을 혐오 범죄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는 300% 이상 증가했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그동안 아시안을 표적으로 한 범죄는 한동안 발생하지 않아왔기에 이번 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재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호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 보상금 청구

■ 청구대상: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 청구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보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회상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뱃살이 고민이신가요? 웬만하면 잘 빠지지 않는 아랫배 속 들어가는 초보자 5분 복근운동



선선해진 날씨 탓인지 요즘 들어 식욕이 더 좋아져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사량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전에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과식 후에는 특히 아랫배가 툭튀어나와 몸에 붙는 옷을 입을 때 신경 쓰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운동을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복근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릴 테니 나에게 맞는 동작들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주 3-4회 이상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6) 살빠지는 요가 15분 복근..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쉽고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Seated C-Curls (고양이 자세 변형) : 코어 운동 전 워업

1단계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깎지 낀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주세요.

2단계 들숨에 척추를 펴고 날숨에 등을 둥그렇게 말아줍니다.

3단계 내쉬는 숨마다 복부를 등쪽으로 강하게 수축하며 당겨주세요.

4단계 5번 이상 반복 후, 본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TIP! 팔을 길게 앞으로 뻗고 배꼽은 등쪽으로 끌어당겨 등의 모양이 알파벳 C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2. Toe Tap (척추의 안정화) : 허리에 안전한 초급자 복근운동

1단계 깎지 낀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두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은 무릎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발을 좌우 번갈아가며 내려 발끝을 살짝 터치하고 올립니다.

3단계 10회 이상 반복후 다음 바로 동작 준비해주세요.

TIP! 허리가 매트에서 뜨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복부의 힘을 쓰고 목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3. Curl Up + Leg Extension (하복부 운동) : 중급자 코어운동

1단계 들숨에 가슴을 들면서 다리를 길게 뻗어줍니다.

2단계 들숨에 머리를 바닥에 내리며 무릎을 접어주세요.

3단계 위의 두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4단계 가슴을 들 때 두 다리가 동시에 뻗을 수 있도록 복부의 힘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고 4+

마지막 세트에서는 잠시 3초 정도 정자세에서 휴딩해주세요.

TIP! 배와 갈비뼈 주변 근육의 자극에 집중하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호흡과 함께 버텨주세요.



4 Neck Stretch (쿨다운) : 목과 어깨 긴장완화

1단계 한 손으로 반대편 머리 옆면을 지긋이 눌러줍니다.

2단계 늘리고 있는 부분에 호흡을 보낸다고



상상하며 3-5번의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3단계 충분히 스트레칭했다고 느껴졌을 때 방향을 바꿔주세요.

TIP! 그래도 여전히 목과 어깨가 뻐뻐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좀더 풀어주고 휴식하세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처/요가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 오전 11시 (Korean) /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 목: 오후 7시 30분 /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처: stadparish@gmail.com /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래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CHOISIGNS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코로나부스터 백신 접종 어려워, 일반 시중약국에 재고 부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부스터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CVS나 월그린 등 매사추세츠 주내 상당수 약국에 재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비상사태 시기에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공급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상업용 제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신의 공급사인 모더나와 화이자 측은 충분한 재고가 있으며 이미 수백만 백신을 배송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스톤글로벌은 밝혔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백신접종 예약 웹사이트(vaccines.gov)를 통해 검색한 결과 주변 10마일 내에 2-3개 약국에서 당일로 예약이 가능했다. 따라서 검색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 당일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 접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보스톤글로벌이 소개했다.

백신접종이 왜이리 어려운가?
연방 정부가 더 이상 구입해 배포하지 않다. 미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로 인해 보험과 공급망의 문제로 공급이 균일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부스터 백신이 구비된 약국 찾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사는 지역 근처에서 백신을 접종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약국에서 접종받기 위해서는 백신장소 예약이 가능한 웹사이트 vaccines.gov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혹 재고가 떨어졌어도 웹사이트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예약을 하기 전에 전화로 재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재고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진행한다.

재고에는 매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예약날짜에 미리 약국에 전화해 백신 접종여부를 재확인한다. 그 래야 약국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이 비용을 커버하는 것을 확인해야

연방법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코페이 없이 보



험에서 전액 지불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코페이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자의 보험이 커버하는 네트워크의 약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신규 부스터 백신을 커버하는지 확인한다.

약국에서도 코페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과거 백신카드와 아이디를 준비해 간다. 보험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코페이를 요구하면 보험사에 전화해 이를 알리고 다시 예약한다.

보험이 없어도 부스터를 접종받을 수 있나?

브리지지역세스프로그램(Bridge Access Program)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Vaccines.gov에서 이 항목을 표시해 검색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약국을 골라 예약해야 한

다.

부스터 백신은 어디 있나?

현재 주공중보건부는 민영 약국의 백신 공급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보스톤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부스터백신을 배송해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많은 부스터 백신 공급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6백만개의 백신이 공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CVS, 월그린 등의 약국은 백신 배송 지연 문제로 백신 접종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잡도록 하고 있다고 지난 금요일인 22일 보도했다. 보스톤글로벌 기자에 따르면 보스톤의 약국들도 상당수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1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미국판 나는솔로' 72살 평범남 돌풍... "보청기로 전하는 사랑"

'골든 베첼러' 주인공 터너, 부인과 안타까운 사별 이야기로 주목 상대 배려하는 태도 인기...제작진 "부자 매력남 아닌 성실함으로 캐스팅"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미국의 한 연애 리얼리티 예능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70대 남성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극적 스캔들 위주의 기존 시즌과 달리 노년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는 ABC 방송의 '골든 베첼러' 출연자인 제리 터너(72)를 집중 조명했다.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은퇴한 터너가 나오는 새 '골든 베첼러' 시즌은 오는 28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벌써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릿빛 피부와 건장한 체구를 지닌 터너가 촬영 등을 위해 공항을 오갈 때마다 많은 여성이 그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함께 '셀카'를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웃을 잘 입는 중년 남성이라는 뜻의 '제디'(zaddy)라는 표현에 할아버지(granddaddy)를 합친 '그랜제디'(grandzaddy)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터너가 미국인들의 이목을 끌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YMCA 무도회에서 만난 여성 토니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골인한 뒤 43년간 행복한

생활을 함께 했다.

2017년 부부는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안 모은 돈으로 호숫가에 근사한 집을 마련해 이사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토니가 세균 감염병에 걸려버렸고, 응급실로 옮겨진 뒤 8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터너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선정적이지 않고 사려깊고 섬세한 방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외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별 이후 줄곧 외로움을 느껴오던 그는 2020년 두 딸에게 문자를 보내 '베첼러'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지원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원래 '베첼러'는 20~30대 미혼 남성이 주인공으로 출연, 여러 명의 여성과 차례로 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제 상대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기 TV쇼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28개 시즌이 방영됐다.

처음 연락을 받고서는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딸들은 아빠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3만명 가까운 지원자 중 터너의 이력서는 곧바로 제작진의 눈에 띄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덮쳐오면서 방송 기획은 장기간 보류됐다.

터너는 3년이 지난 올 2월 플로리다주(州)에서 휴가를 보내다 주인공

으로 출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베첼러'를 노년의 사랑을 주제로 새롭게 기획하던 제작진은 이번 시즌을 '골든 베첼러'라고 바꿔 이름붙였다.

터너가 방송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 22명의 나이는 60~75세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보청기를 착용하기는 하지만 평소 피클볼과 골프 등 스포츠를 즐겨하는 등 건장한 상태다.

지난 7월부터 한달 가량 촬영에 임한 터너는 상대 여성이 민망함을 느끼지 않도록 카메라 밖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성관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골든 베첼러' 제리 터너와 여성 출



골든 베첼러에 출연하는 제리 터너씨

연자터너는 은퇴 이후의 이성교제라고 특별할 것은 없다며 "내 또래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에 빠지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고, 여전히 활력있는 일상을 보낸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우리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부자의 진정성 없는 '매력적 노년 남성'(silver fox)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며 "터너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계기로 인기가 올랐지만, 우리가 그를 고른 것은 성실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dk@yna.co.kr



골든 베첼러에 출연하는 여성 출연진 60~75세이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좋은사람들 www.juns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원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하원의장, 상원 임시예산안 거부 방침...美 세번째 섯다운 코앞

공화, 강경파 요구 수용한 예산안 추진...상원 반대로 통과 난망 민주당 협력 얻어 통과시 불신임 각오해야...하원의장 '딜레마'

(워싱턴 =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상원에서 잠정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인 섯다운이 코앞까지 닥쳐온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공화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날 상원 절차 투표 통과를 통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밥 굿 하원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매카시 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원이 임시예산을 처리한다 해도 하원에 오자마자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카시 의장이 다른 비공개 모임에서는 상원 임시예산안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경 안보 법안을 붙여 처리한 뒤 상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와 별도로 2023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이달 말까지 국경 안보 조항을 포함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WP는 양원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섯다운 사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왔다. 하지만, 역대 미국 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통과를 미룬 적이 있어 섯다운 사태를 맞았었다.

가장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8년 말 '국경장벽' 예산이 문제가 돼 최장 35일 동안 연방 정부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당은 정부 예산의 급격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로 예산 협상은 물론이고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협조가 없으며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강경파를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뿐

이지만, 이 경우 당내 리더십을 잃게 돼 사실상 불신임 수순을 밟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카시 의장은 내부적으로 국경 안보 등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한 자체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섯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정

부 단기 지출을 보장하는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합의, 절차에 착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을 향해 "섯다운을 피하는 길은 초당적 해법뿐"이라며 "강경파들의 요구에 집착하면 당신은 점차적으로 섯다운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kyunghlee@yna.co.kr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차례는 명절 아침 맞손자 집에서?"...50년째 남아있는 법령

가정의례준칙, 과소비 막으려 결혼·제사 등 진행방식 규정 여성학자·성균관 모두 "시대와 맞지 않아...과감히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절사(차례)는 제주(祭主·제례의 의식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낸다. 제주는 종손(맞손자)이 되며 제사를 주재한다.'(1969년 제정 '가정의례준칙' 중)

차례 절차를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도 생소한데, '맞손자'(둘 이상의 손자 가운데 맏이인 남자)까지 명시해둔 까닭에 한참 전에 폐지돼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법령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법령은 이름과 처벌 규정만 몇 차례 바뀌어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준칙으로 남아있다.

처음 제정된 지 30년도 더 지났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 가정의례준칙 제5장 '제례' 부분을 보면 여전히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에 맞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라는 규정이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설명을 보면 가정의례준칙이 처음 제정되던 1969년 당시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연한 과소비적 의례 문화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을 대통령 고시로 최초로 제정했다.

그러나 그 준수율이 낮아 197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각종 의례에서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

화환 등 장식물 진열, 답례품 증여, 경조기간 중 주류와 음식물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금액은 1981년 200만원으로 올랐다.

가구마다 생활방식이 다양해지고 허례허식 철폐 필요성이 낮아지자 1999년 개정 법률에서는 가정의례 관련 법적 규제가 폐지됐고, 의례 절차에 대한 규정은 권고적·훈시적 법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차례는 맞손자의 집에서 지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결혼식도 신랑이 먼저 입장한 뒤 신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이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여성학 박사)은 "가정의례준칙에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해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지향해야 할 법령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도 해당 준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가정의례준칙이 처음 제정된 1969년과 달리 이제는 국가가 가정의례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성균관은 유교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



조운주 식품명인체험홍보관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예서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추석차례상 시연 행사에서 모델들과 함께 전통 차례상 차림 및 차례 예법을 소개하고 있다.

감하게 바꾸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손자의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딸만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느냐"고 반문하며 "마땅히 딸도 제사권을 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례법 폐지 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 3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 여가위의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key@yna.co.kr, krock@yna.co.kr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본격화... 서울→부산 9시간10분, 목포 9시간 20분

(서울=연합뉴스) 최운선 기자 = 추석 하루 앞둔 2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남사 부근 28km, 안성분기점~안성 5km, 안성~남이분기점 60km,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km,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km 구간에 서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km,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km, 해미부근~홍성 7km,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

ysc@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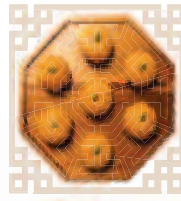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29th - OCT. 5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추석맞이 대세일 CELEBRATE THE FULL MOON HARVEST

CHUSEOK CHAMPION: KABOCHA SONGPYEON
 These celebratory rice cakes are adorably pumpkin-shaped to honor the fall vibes, and infused with kabocha flavors both in the dough and filling to make an impressive autumnal treat for Chuseok!
 추석에 맞아 H 마트와 함께 호박 모양의 예쁜 단호박 송편을 빚어보세요!

Lago Grape 라코 포도 HALF BOX \$24.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Mango 망고 BOX \$9.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Seedless Orri Mandarin 씨없는 오리 만다린 LB \$2.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Heel Meat 생소 사태 LB \$7.99	Fresh Ox Tail 생소 꼬리 LB \$13.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2.49
Frozen 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LB \$13.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S/LB \$5.99	Frozen Squid 냉동 오징어 400 UP/LB \$2.99
TONGTONGBAY Dried Das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10.99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LB \$10.99
Frozen Abalone 전복 8-10'S/LB \$14.99	Fresh Salmon Fillet 연어 필렛 LB \$9.99

SMART CARD MEMBER ONLY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49.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6.99	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그 집 떡갈비 ORIGINAL/SPICY 16 OZ \$9.99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쌀 옐로우 15 LB \$16.99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4.99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5 OZ X 4 EA/PKG \$5.99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BOWLS/PKG \$13.99	KWANGCHEON Kakao Friends Ryan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프렌즈 채래김 (장바구니 포함) 0.17 OZ X 27 EA + BAG/PKG \$11.99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JS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3.99	POODIE One Bite! Ball Link 푸드 한입! 순대볶음 1.4 LB \$8.99	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 OZ \$6.99	PULMUONE Katsuo Udon 풀무원 가쓰오우동 1.02 LB \$5.99	K TOWN Sliced/Tteobokki Rice Cakes 케이타운 떡국떡/떡볶이떡 2.2 LB 2\$5 FOR
HAIOREUM 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CO-BRAND 밀가루 5.5 LB \$3.99	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향그리 강냉이 5.99 OZ \$1.99	HELLO! 2 Handle Wok Pan 헬로! 투핸들 워크 26/30/32 CM \$17.99-22.99 \$12.99-16.99 EA	KüHAUS Electric Honey Pot Shape Glass Kettle 쿠하우스 폴단지형 전기 주전자 \$32.99 \$22.99 EA	Yellow Aluminum Pot 한국산 양은 황냄비 14 CM \$8.49 16 CM \$10.49 \$4.99 EA \$6.49 EA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팀장 한 준 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이애나 김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줄리 김 578.43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니키 박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피터 루 617.780.7835 <small>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지나 최 578.886.3248 <small>choi@bostonpremierrealty.com</small>	 윤 조주 401.935.3397 <small>yoo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시라 리 617.88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그레이스 리 617.435.7713 <small>grace@bostonpremierrealty.com</small>	 현수 김 617.598.8973 <small>hy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미라 송 213.303.0397 <small>mira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미키 리 413.507.1402 <small>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선호태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최헌진 617.877.0387 <small>h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미영선 781.850.3412 <small>my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은혜숙 781.899.1214 <small>msuk@bostonpremierrealty.com</small>	 장병영 617.315.1162 <small>by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이호준 617.543.5728 <small>jiho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레이철식 617.852.7489 <small>seok@bostonpremierrealty.com</small>
 Tammy Woolfolk 917.224.5610 <small>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small>	 Nancy Wang 617.230.9952 <small>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Shirley Zhao 857.231.8316 <small>shirley@bostonpremierrealty.com</small>	 Whyan Yu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Xian Dole 413.322.8979 <small>dole@bostonpremierrealty.com</small>	 Lu Jiang 240.449.0117 <small>luj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John Tran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Rebecca Phu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Michael Somma 978.873.0376 <small>msomma@bostonpremierrealty.com</small>	 Linda Tu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Jun Wang 649.276.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Lily Wang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Crystal Wei 413.2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Angela Zullo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제이크 김 617.598.3409 <small>jeek@bostonpremierrealty.com</small>	 이강현 857.280.0434 <small>ik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Anthony Tran 857.288.46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Mina Delangre 413.237.1586 <small>mi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검찰, 당혹감 속 '사실상 추 혐의 소명' 논리로 역풍 방어막

"이게 직접증거 아니면 뭐냐"...이화영 진술 임의성 인정도 부각
"현직 대표" 고려한 법원 판단 비판하며 수사 정당성 재차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면서 영장 기각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소명'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눈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세밀히 따져보면 '사실상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정당성에 대한 역풍 차단에 나섰다.

법원을 향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는 도외시한 채 야당 대표라는 신분만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고 역풍을 취했다.

◇ '직접 증거 부족' 백현동 사건에 '배임죄 성립 전제로 판단'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전제한 데 강조점을 찍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판단 자체가 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리적 차원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거론한 것을 의식한 주장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이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성남시에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인 '방침 결제'가 있었다고 맞서기도 했다.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방침 결제에 따라 공사를 배제한 민간 단독 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원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이 대표 지시를 받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이 모두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란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면 이제 녹취 수준이 아니면 인

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들 정도"라고 항변했다.

◇ '다툼 여지' 대북송금 사건엔 '혐의 소명에 부족함 없어'

법원이 명시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혐의 소명에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김 전 회장의 진술, 비용 대납의 수혜자라는 이 대표의 위치 등 증거들에 더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한 임의적 진술까지 인정된다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는 논리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임의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혐의 소명 여부가 아닌 증거인멸 여부를 살펴 보면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면 (혐의 소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에 상호 모순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더니 이를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또 "재판부는 북한에 800만 달러가 대납된 사실은 문제 삼지 않고 이 대표의 인지·지시 여부에 대

해서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이화영의 진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대표 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가 아닌 '다툼'이라고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진술 회유 수혜자는 이재명"... 이재명 입김 강조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법 방해' 시도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고 반문했다.

또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인데 재판부가 일반 사건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역시 이 전 부지사 재판 사례처럼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의 탄원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등이 재판부가 아닌 민주당에 제출됐으며 "누가 작성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맨 뒷선인 이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결국 이화영의 진술서를 받아낸 수혜자가 이 대표 본인인데 직접 안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

야 살해 지시냐'

◇ '법원 정치적 고려' 비판... '野 대표 아니었다면 다른 결과'

검찰은 이렇듯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였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불법 범행이란 걸 충분히 설명했고 재판부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 대표라는 신분도 있어서 엄격하게 보지 않았나 싶다"며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주요 혐의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사건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있음
-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북송금 사건

- 이화영의 진술 관련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음
-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위증교사 혐의

- 소명되는 것으로 보임
-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음

구속영장 기각 판단 근거

증거인멸 우려

-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한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구속 필요성 등 결론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골프와 인생 5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7번홀 : 골프 그리고 매너와 배려

골프채를 처음 잡고 머리 올리러 가는 날 (필드에 처음 나가는 날) 선배 골퍼가 우려섞인 목소리로 몇가지 골프 에티켓을 말해준다. 첫째, 티잉그라운드에는 플레이어 외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 밑에서 기다려라. 둘째, bunker 샷 후에는 반드시 모래를 정리하고 나와라. 세 번째, 그린에서 남의 퍼팅라인(Putting Line: 그린위의 볼과 홀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절대 밟지 마라. 이 외에 지켜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지만 우선 이 세가지만 명심하고 플레이를 하라고 주문한다.

그렇지 않아도 필드에 처음 나가 모든게 어리둥절해서 내 볼 하나 다루기 힘든 마당에 참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 처음에야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없이 골프선배가 시키는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나서 나도 어느정도 초보자에게 이러쿵 저러쿵 골퍼에 대해 말할 정도가 되어야야 그때 내 골프 선배가 왜 그렇게 신신 당부 했는지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골퍼란 운동은 플레이어의 매너 즉 에티켓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골프의 에티켓을 곰곰 살펴보면 규칙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를 위한 배려로 가득차 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가장 편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최상의 조건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어야 하는 모든것들을 나열한 것이다. 골퍼도 경기 임에 틀림없는데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 하라니... 참 어이없는 규칙이기는 하지만 매력적인 규칙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골퍼규칙집 서문에 "골프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코스에서 항상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을까!

자! 이제 나의 '골프와 인생' 일곱번째 홀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오늘은 친한 친구들이 아닌 업무상 거래처 지인들과 플레이에 나섰다. 평소 일로 가끔 만나 술잔 기울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이지만 속마음까지 터놓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 최대한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상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랄까? 어쨌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야하는 그다지 재미있다고는 할수 없는 그런 라운딩을 해야하는 날이다.

첫홀 티잉그라운드에 올랐다. 한참 어드레스 자세를 갖추고 티샷을 준비하는데 지들끼리 업무상 일로 대화를 나눈다.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있다. 신경이 쓰인다. 친구들 같으면 "야 자식들아 좀 조용히 해 나 티샷 하자아..."하며 한마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가 자리인 만큼 아무소리 못하고 상한 기분을 안고 그냥 티샷을 날린다. 볼이 잘 맞을 턱이 없다. 사실 이날도 동반 플레이어들이 라운딩 내내 무매너로 플레이를 한 건 아니다. 지킬건 지켰다. 다시 말해 티잉그라운드에 쫓아 올라와 티샷을 준비하는 동안 어설픈 헛스윙을 하며 나의 플레이를 방해한 사람은 없었다. 단지 티잉그라운드에는 플레이어만 올라 간다는 그 규칙은 지키면서도 그 규칙 내면에 깔려있는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이다.

티샷을 모두 마치고 세컨샷을 위해 함께 이동한다. 이동 중에 서로간의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볼로 자리한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들의 세컨샷은 깊은 러프속에 박혀있기 일수이다. 이때 열과 성을 다해 함께 볼을 찾아주는 사람, 건성 건성 볼을 같이 찾아주는 적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볼이야아에 신경 안쓰고 자기 볼에만 집중하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다. 물론 상대의 공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규칙은 없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상대에 대한 배려 등 남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골퍼다.

이런 골프의 매너는 실생활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게 된다. 내가 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니 일의 특성상 회원사간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당연히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회의라는 것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도 개인의 골퍼매너가 여지없이 들어나게 된다. 물론 각자가 속해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 양보라는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상대를 배려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사람, 배려라고는 눈을 찡긍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상대 이야기 중간에 혹 끼어드는 사람, 상대야 무슨 이야기를 하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끝까지 아무말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사람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들어내게 된다.

어쨌든 나는 잃어버린줄 알았던 볼을 나의 동반 플레이어가 찾아주는 바람에 별타없이 기분 좋게 세컨샷을 날렸다. 하지만 나의 세컨샷은 그린 주위에 포진해 있는 모래 bunker에 빠지고 말았다. 오늘 참 초구부터 잘 풀리질 않는다. bunker에 다다른 나라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가뜩이나 자신이 없는 bunker샷인데

bunker안은 온통 발자국 천지이다. 더군다나 나의 볼이 움푹 패인 발자국 안에 위치해 있다. 뒷팀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앞팀의 전황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매너 없는것들..."


첫홀부터 여러가지 거슬리는 일들로 그날 골퍼는 완전히 망쳤다. 무심코 행한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무심코 내 성격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골퍼란 운동은 늘 게임이 끝난 후 라운딩 도중 동반자의 게임을 위해 나는 얼마만큼의 배려를 했는지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하는 운동이다. 아울러 라운딩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숨은 모습을 동반자에게 적나라하게 노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인생역시 상대에게 얼마만큼의 배려를 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 상대가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았는지 늘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할 때 그 사람을 매너있는 사람 또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과연 내가 남들로부터 매너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지 아니면 배려심 없는 독불장군으로 평가 받을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제 3회 NE지역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공모 주제

- 뉴잉글랜드 지역 교과서, 공공 장소 지도, 출판물, website 등에 표기된 동해 (East Sea), 독도 표기 실태를 조사 후 체험한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 사이버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 내용

일정

- 신청등록마감 2023.10.08
- 작품제출마감 2023.11.04
- 시상식 2023.12.02 동요합창제 직전 보스톤 한인 교회

참여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K이상 12학년
- 개인 참여원칙(개인당 1 작품 참여)
- 외국인 친구와 참여할 경우 특별 시상

접수방법

- Google form 접수(오른쪽 상단 QR 코드)
- 접수문의
naksne.secretary@gmail.com
lovelykids76@gmail.com

학년별 공모 작품유형

- K-2학년: 그림일기 내용 30자 이상
- 3-5학년: 포스터 12x18인치 100자 이상
- 6-8학년: 에세이
12 font, double space, 2 페이지 이상
- 9-12학년: 보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파일형식 mp4, 본인 얼굴 2/3 이상 삽입, 최대 5분, 저작권 위배되는 음악 삽입 불가
- 교사: 수업내용 보고서 (자유형식)

시상내용

- 전체 대상 '나라사랑(총영사상)' 1명
- 부문별 대상 '동해지킴이상, 독도지킴이상'
- K-12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 전체 대상 배출 학교 시상
- 교사 수업내용 보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참가자 전체 시상

심사기준

- 교과서, 지도, 출판물, 지역, 공공장소, website등 조사 및 시정 노력
- 시정 결과
- 주제 적합성 (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작품 완성도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외교부
NAKS-NE
이사회 및 교장단



주보스톤총영사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6) 진정한 부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우리가 모두 부자(Rich) 되기를 원한다. 축적된 자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분명 부자의 의미는 다를 것이다. 슬랙(Slack)의 공동 창업자인 스투어트 버터필드(Stewart Butterfield)는 부자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 단계. 빚(Debt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둘째 단계.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한다.

셋째 단계. 휴가(Vacation) 비용에 대해 전혀 부담 없이 여행한다.

아이들 키우며 한창 일할 때는 휴가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일년에 한두번 여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는 남는 것이 시간이다. 며칠 혹은 몇 달 여행할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하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이웃이 좋은 집에 비싼 차를 타며 명품으

로 치장하고 다니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무리한 지출을 한다. 공장에서 바로 나온 차의 냄새는 좋지만, 고급 자동차는 사자마자 가격이 급속하게 내려간다. 투자로 돈이 불어나기는 커녕 신용카드를 갚기 위해서 매달 빚에 쪼들린다.

직장인의 봉급이나 자영업자의 수입이 번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최근 실리콘 밸리의 부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다'고 한다. 높은 봉급의 구조상 회사 주식이 포함하는데 주식 폭락으로 봉급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영업 역시 경제 주기에 따라서 어느 순간 변할 수 있다. 절약하며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금융 상식을 주위 친지로부터 조언받고 실행한다. 대표적인 예가 펀데믹이 한창일 때 친지들로부터 주식 추천을 받고 투자한 경우이다. 친지가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다고 하면 우

연(Luck)히 잘 된 경우이지 주식 선별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인 동포 가정에 여윌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고한다. 부동산 투자의 어려움과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받는 것으로 은퇴 생활비로 사용할 거라는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본인은 모른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돈을 따면 재미있고 흥분된다. 도박은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하며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24시간 스마트폰으로 주식가격을 검색한다. 그러나 어떤 기업의 본래 가치가 주식 가격처럼 수시로 오르내린다면 큰 문제이다. 장기투자는 재미없지만,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

재정(Personal Finance)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한다. 인터넷 기사 등은 잠깐의 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많은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책 한 권 보는 것이 주위에 있는 주식 도사(?)나 인터넷 등에 떠돌고 있는 뜨거운 주식 정보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500씩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왔다. 한 달 \$500 투자가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큰 돈으로 불어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30년(1993-2022)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100만 불로 불어난다. 부부가 함께했다면 \$200만 불로 은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시장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다르다. 고국을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민 생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가? 제대로 하는 투자로 재정적인 부자는 물론 마음의 부자로 남은 인생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원화 준정이 남모를 살해한 사건과 원화源花 폐지 및 화랑도 설치연도 등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화랑세기의 기록을 모두 종합해서, 즉 교차 검증해서 결론지어 보면, 신라에는 진흥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화랑도가 있었다. 540년 7세의 나이로 김삼백종이 진흥왕으로 즉위하자 모후 지소태후는 섭정을 하였다. 지소는 당시 화랑도를 이끌던 원화준정을 물러나게 하면서 자신의 이복자매인 남모를 원화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준정에게는 이미 3,4백여명의 따르는 낭도가 있었고, 남모에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소태후는 위화랑에게 명하여 그의 낭도들 중에서 일부를 남모에게 배속하도록 하니, 남모의 낭도들도 준정의 무리와 비슷하게 되었다. 이어서 지소는 미진부를 시켜서 준정에게 원화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하였다. 그러자 준정은 자신을 총애하던 박영실에게 매달려 남모가 원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박영실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준정은 원화의 사임보다는 남모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꾸민 준정은 남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고, 만취한 남모를 복천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강물에 던졌다(혹은 집에서 살해한 후 복천 강가에 유기하였다). 곧 준정의 범죄는 발각되었고, 그녀 또한 처형되었다. 그리고 지소태후는

원화제도를 폐지하고 풍월주를 세워 화랑을 이끌도록 하였다. 즉 화랑의 우두머리가 여자(원화)에서 남자(풍월주)로 바뀌었다. 살인 사건과 원화 폐지, 그리고 화랑도 설치(풍월주제도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가계와 그들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본다.

준정의 아버지는 삼산공으로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가계는 없다. 그리고 그녀는 박영실의 애첩이었다. 다만 원화 남모의 신분이 공주였으니 삼산과 준정도 진골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박영실의 부모는 수지공과 보현공주이다. 수지의 아버지는 이흔이고, 이흔의 아버지는 등흔이다. 그런데 등흔이 청야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등흔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편 박제상은 국대부인과 함께 아들 박문량(백결선생)과 딸 셋, 박아기체(阿奇)와 청야(미해)에게로 시집가서 백흔을 낳았는데, 백흔과 박영실의 증조부 등흔이 동일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청야는 눌지왕의 동생 미사흔과 결혼하여 백흔을 낳았고, 백흔의 아들은 삼산공이며, 삼산의 아들 위화랑이 초대 풍월주이다. 그리고 위화랑의 딸이 옥진과 금진이다).

결론은 청야가 미사흔이 아닌 다른 남자로 부터 등흔을 낳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등흔은 부인 모랑공주와 함께 아들 이흔과 딸 연제를 낳았다. 연제부인이 제22대 지증왕의 왕후

이다. 그들은 원종(범흥왕)과 입종 등의 아들과 딸 보현공주를 낳았다. 보현공주가 박영실의 어머니이다.

한편 제23대 범흥왕은 적자가 없었다. 게다가 동생 입종마저 조종하고 나니 차기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없었다. 그래서 범흥왕은 후궁 옥진공주(위화랑의 딸)의 아들 비대(比臺)나 생질(生質)인 박영실에게로 물려주려고 하였다. 452) 그러나 딸이자 동생 입종의 부인인 지소와 또 다른 딸 삼엽공주(어머니는 벽화후, 벽화는 제21대 비처왕의 후궁이었다)와 위화랑의 반대로 자신의 뜻을 거두어오란 했다. 결국 왕위는 손자이자 조카인 삼백종에게로 이어졌으니 그가 제24대 진흥왕이다. 지소는 그 당시 박영실을 계부로 맞이하여 그의 부인이었지만, 왕후가 되기보다는 태후가 되어 섭정의 권력을 선택하였다.

남모공주 역시 범흥왕의 딸인데 어머니는 보과공주이다. 보과공주는 백제의 제24대 동성왕의 딸이다. 남모의 동생 모랑은 3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는데, 낭도들을 이끌고 국토를 순례하다가 비사벌에서 병을 얻어 요절하였다. 남모의 남편은 2세 풍월주 미진부이다. 미진부는 진흥왕 재위시 거칠부 등의 장군들과 함께 영토확장에 많은 공을 세웠다. 부인 남모가 준정으로부터 살해된 후 그는 오랫동안 고향을 하지 않았다. 미진부는 삼엽공주의 아들로 범흥왕의 외손자이다. 궁중에서 범흥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던 중 범흥왕의 어린 후궁 묘도와 사통하게 되었다. 감히 말을 못하고 지

내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지소의 명으로 묘도를 부인으로 맞이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실과 10세 풍월주 미생을 낳았다. 묘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영실과 옥진사이에는 딸 셋이 있었는데, 장녀 사도는 진흥왕의 왕후이고, 차녀는 묘도이다. 삼녀 흥도는 기오와 결혼하여 딸 지도를 낳았는데, 그녀가 제25대 진지왕의 왕후이다.

452) 8세 풍월주 문노의 아버지는 비조인데, 부친 호조의 뒤를 이어 외교에 능하여 자주 가야를 방문하였다. 또한 부인 청진공주가 범흥왕의 총애를 받아 요직에 발탁되었으며 그 권세가 칠총신(마복칠성: 아시, 수지, 이등, 태종, 비랑, 용취, 위화랑 등)과 같았다. 또한 그는 정세를 잘 파악하여 박영실을 따랐다. 537년, 적자가 없었던 범흥왕은 차기 왕위를 박영실에게로 넘기기로 정한 후, 혹시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비조를 병부령(兵部丞)으로 삼아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소, 삼엽, 위화랑 등의 반대로 인하여 박영실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진흥왕 즉위와 함께 권력을 잡은 지소는 비조를 병부령에서 해임하고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 결국 밀려난 영실과 비조는 함께 배독을 두며 실권의 쓴맛으로 험악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28th - OCT. 5th, 2023



ESENCIA
PREMIUM QUALITY

**GRAPE
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9.99

2 L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미 이민국(USCIS),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1년동안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the Sought to Acquire)>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발표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에 이민 목적으로 “아동”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민 분야에서, ‘아동’ 라는 용어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미 이민국은 아동 신분 보호법과 관련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4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정책변경을 의미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의 요구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후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서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시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해당 자녀의 영주권 신청도 승인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21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2년 8월 6일,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포함될 자격이 있었지만 서류 검토나 비자번호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에 따르는 지연을 기다리다 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21세를 넘게 되어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의 발효 이전에는 21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신분을 상실하고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기반의 영주권 신청과 취업 기반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아동신분보호법상의 연령(CSPA 연령)은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간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은 ‘CSPA 연령’ 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자의 ‘CSPA 연령’ 은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날짜의 신청자 나이(비자 이용이 가능한 시점의 연령)에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청원서가 계류 중인 일수(계류시간)를 빼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CSPA 연령’ 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SPA 연령 = 비자 이용이 가능한 시점의 연령 - 계류시간

그렇다면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2015년 10월 이전에는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이민 비자가 제공되는 날짜는 현재 ‘최종 조치 날짜’ 차트로 알려진 미 국무부(DOS) 비자계시관에 게시된 차트를 참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미 국무부는 국무부 Visa Bulletin에 2개의 차트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차트는 ‘제출 날짜’ 차트(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아 미 국무부 비자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줌)와 ‘최종 조치 날짜’ 차트(비자 발급이 승인된 시기를 알려줌)로 구성됩니다. 2015년 10월부터 미 이민국은 신청자가 “신분조정 신청서”(adjustment of status applica-

tion) 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즉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언급된 두 차트 중 하나를 매달 지정했습니다. “신분조정 신청”(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은 영주권 신청의 전체 과정이 신청자의 해외 거주 국가가 아닌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신청자는 ‘즉시 이용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이전, 아동신분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미 이민국은 ‘최종 조치 날짜’ 차트를 기반으로 CSPA 연령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만 고려했으며 ‘제출 날짜’ 차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혼란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지침이 발표된 후 동일한 신분조정 신청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제출 날짜’ 차트에 따라 ‘즉시 사용 가능한’ 비자를 가질 수 있지만, CSPA 연령 계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제출 날짜’ 차트를 기준으로 신청한 신청자는 아동신분보호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CIS는 2023년 2월 14일에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가 이제 동일한 날짜가 “CSPA 연령”을 계산하기 위해 비자가 가능한 날짜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USCIS가 신분조정 신청서를 수락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날짜로 고려할 것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시행된 정책 지침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을 위한 비자는 가능하지만 “CSPA 연령” 계산을 위한 비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

으로, 이전 정책에서는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USCIS가 신청자의 “CSPA 연령”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전 정책에 따라 USCIS가 신청자의 “CSPA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계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14일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신분조정 신청을 제출했거나 현재 제출할 수 있는 동일한 신청자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시행된 이전 정책 지침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일부 신청자는 더 이상 새 정책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이민국은 2023년 8월 24일에 이전 2023년 2월 14일의 정책 변경을 통해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2월 14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 지연의 합리성은 2023년 2월 14일 정책 변경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미 이민국이 이 정책을 발표한 날짜인 2023년 8월 24일부터 결정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 10월 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쥐띠 첫 단추를 잘 끼워야</p> </div> <p>● 운수: 비록 자신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 금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애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남이 시작이 되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소띠 단호한 결정을</p> </div> <p>● 운수: 깜짝 놀래고 깨지는 일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 충 돌사고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고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지만 결국 섬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고독 앞에서 받는 상처가 제법 클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범띠 인생을 바꿀 수 있는</p> </div> <p>● 운수: 비로소 빛을 보게 되니 삶에 활기도 생길 것입니다. 우울, 좌절, 초조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행동해보세요. ● 금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어 가는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토끼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p> </div> <p>● 운수: 그동안 가져왔던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면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섬광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보세요. 의욕이 되살아나니 평소보다 더 일하게 되고 수입도 놀랄 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7일 길일, 3, 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용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p> </div> <p>● 운수: 때로는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금전: 너무 물질적인 것에 얽매인 생활을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 욕기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5, 6일 길일, 1,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뱀띠 이해력이 요구되는</p> </div> <p>● 운수: 제품에만 질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 금전: 성공하고 초초한 마음에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뒤에 가서 손해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 애정: 서로가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인내력과 이해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 6일 길일, 5,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말띠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p> </div> <p>● 운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비로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 금전: 그동안 쌓아온 인고관계가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면에서 나아지고 계약이나 거래가 잘 성사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7일 길일, 1, 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양띠 물 흐르는 대로</p> </div> <p>● 운수: 자그마한 것이 여럿이 모여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큰 것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 3일 길일, 1,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원숭이띠 보람을 얻게 되는</p> </div> <p>● 운수: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해도 크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꾸 미뤄지던 일이 차츰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작은 행복에 기뻐해 보세요. 두배로 나온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7일 길일, 2, 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닭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p> </div> <p>● 운수: 일처리 과정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빛나 갈 수 있습니다. 매사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변화가 많고 풀릴듯 말듯 하니 초조하고 답답하셨습니다. ● 애정: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멀리서 바라만보던 사람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3,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개띠 꿈꾸던 일을 실현시키는</p> </div> <p>● 운수: 평소에 바라던 것을 하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꿈꾸던 일을 실현시키게 되었습니다. ● 금전: 포기했던 돈이 들어 오거나 결코 빌려줄 것 같지 않았던 상대에게 금전을 융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바깥활동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5일 길일, 1, 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p>돼지띠 현실에 만족하도록</p> </div> <p>● 운수: 현실에 불만이 있어도 곧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곳곳이 잘 참아내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위에 건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건주면 남는다면 옛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 애정: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위안을 주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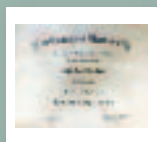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강 및 마감 자격증 프론트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언더커버' 장점 농축한 드라마 '최악의 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너 서울 가서 새로운 일 해볼래?"

한때 대전에서 주먹으로 유명한 문제 아였던 '악바리' 경찰 박준모(지창욱 분) 앞에 그가 친형처럼 따르는 경찰 선배가 나타나 이렇게 제안한다.

정기철(위하준)을 위시한 이른바 '강남 연합'이 일본에 거액의 마약을 유통하려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인 박준모가 신분을 위장해 조직에 침투한다는 것이 중심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박준모의 아내이자 엘리트 경찰인 유의정(임세미)이 마약 수사에 뛰어들면서 이야기는 점차 복잡해진다. 정기철의 오래전 첫사랑이 바로 유의정이기 때문이다.

27일 공개되는 디즈니+ 새 드라마 '최악의 악'은 이 같은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액션과 스릴러 요소를 밀도 높게 배치한 12부작 드라마다.

드라마는 첫 장면부터 무더기로 선혈이 낭자한 패싸움을 벌이고, 이어 2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인물들의 서사를 풀어낸다.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일하던 정기철은 일명 '장중사'가 이끄는 폭력조직에 들어갔다 일년여 만에 조직 간부들을 일거에 모두 제거하고, 그가 이끄는 '강남 연합'이 강남의 주인이 된다.

박준모는 아내 유의정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경찰 집안인 처가에서 무시당하던 중 '강남 연합'에 잠입하라는 제안이 들어오자 "두 계급을 특진시켜달라"는 조건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인다.

언더커버, 즉 비밀리에 행하는 위장 첩보 활동을 다루는 드라마는 형사물 중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유명 홍콩 영화 '무간도' 시리즈가 언더커버를 다뤘고, 한국 영화 '신세계'(2012) 역시 언더커버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

'최악의 악'은 예고편에 "'신세계' '헌트' 제작진"이라는 문구를 넣어 유사성



을 숨김 없이 내비쳤다.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인 '헌트' 역시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스파이 색출 작전을 다룬 영화다.

예고편에서 제작진이 같다고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최악의 악'을 보면 '신세계'를 비롯한 언더커버 소재 작품이 쉽게 연상된다.

첫 회에서 박준모를 찾아온 선배 경찰이 "새로운 일 해볼래?"라고 제안하는 장면은 '신세계'에서 강형철(최민식)이 후배 경찰 이자성(이정재)에게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고 말하는 장면과 겹쳐 보인다.

정기철이 박준모를 시험하기 위해 권총을 쥐여주며 사람을 향해 쏘라고 강요하는 장면 역시 '신세계'에서 이자성을 앞에 두고 다른 언더커버 경찰을 처형하는 정청(황정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장르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고 시작한 '최악의 악'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기철의 옛 첫사랑이 유의정이고, 유의정은 박준모의 아내이자 박준모를 구하기 위해 마약 작전에 뛰어들는 경찰이라는 삼각관계는 언더커버 소재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치 않은 설정이다.

언더커버 액션물의 주 시청자들이 멜로 요소와의 결합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최악의 악'의 이런 설정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악'이 내세울 수 있는 다른 강점은 익숙한 장점을 더욱 밀도 높게 배치한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첫 장면부터 강한 액션 장면을 선보인 데 이어 정기철이 '장중사'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액션을 1회에 곧바로 펼친다. 몸을 쓰고 서로 속고 속이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해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언더커버 소재 범죄물을 보는 시청자들이 흔히 기대하는 액션과 정체를 숨긴다는 데서 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주력하면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BTS 정국이 달군 뉴욕의 토요일 밤...라토와 첫 '세븐' 무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세계 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오늘 밤 무대에 제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K팝의 거대한 물결이 토요일 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모인 인파를 덮쳤다. 굶은 날씨에 우의를 갖춰 입은 관객들은 쌀쌀한 저녁 날씨도 잊은 채 무대를 향해 열정적인 환호와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오후 센트럴파크에서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 삼아 열린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서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국제 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여는 대규모 자선



공연이다. 극빈, 기아, 기후변화등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2012년

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슬 같은 그녀

"나는 그림이란 결혼했는걸!"
"언니, 정말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보긴 해 본 거야?"

이렇게 열정적인 두 여자의 대화는 시작 된다. 어떤 일에 있어 거침이 없는 한 여자와 다소곳하지만 깊은 우물 속 샘물 같은 속 깊은 한 여자가 만나면 둘이는 그렇게 행복 할 수가 없다. 세상 나이 오십 중반에 있는 멋진 미혼인 아가씨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나이 든 노(老)처녀가 아닌 언제나 이슬 같은 노(露)처녀다.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아이처럼 해맑고 순박한 순백의 영혼을 가진 화가 유수레님이 바로 그녀이다.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 화가인 그녀를 그렇게 관람자로 만났다. 그렇게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며 그녀가 살아온 어린 시절의 애기와 한참 잘나가던 때의 얘기는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평상시에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품의 그녀가 그림 얘기만 나오면 아니 그림과 하나가 되는 순간의 그녀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그녀에게서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다. 가끔은 그 매력이 지나쳐 매력마저 느껴지는 묘한 에너지가 그녀에게 숨어 있다. 그래서 글쟁이인 나는 평범하지 않은 오십 중반에 있는 노처녀 화가

의 보이지 않는 속내가 그녀의 깊은 생각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녀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참으로 가난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깊어 맑은 영혼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유명한 꿈추화가 손상기 화백이었다. 그녀는 그의 수제자였고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는 닭을 팔아 달까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가난했던만큼 그녀의 그림에서도 펼쳐버릴 수 없는 외로움과 깊은 고독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며 승화시켜 온 것이다.

그녀는 오래전 한국에서 손 화백과 함께 한국의 달동네를 처음 화폭에 담아냈던 화가라고 한다. 그 달동네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씩 달동네를 수없이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사람과 삶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캔버스에 담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처럼 처음에

는 사실화로 출발하여 구상화까지 많은 달동네를 탄생시켰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업실에는 입시생들이 많았으며 가르치던 제자들 중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그 감격이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어느 사람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타오르는 창작의 열정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의 불꽃일 것이다. 설령 그 불꽃에 제 살갓이 데일지언정 그 데인 상처 자국으로 더 깊은 영혼의 불꽃 심지를 만드는 그 예술혼은 가히 보는 이로 하여금 말문을 단게 한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창작에 대한 불꽃으로 있으면서도 가끔은 무엇인가 텅 채워진 것 같은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차에 미국에 친지들도 있고 몸도 마음도 식힐 겸 여행을 왔다가 그만 그림 공부를 더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자던 것이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다.

언젠가 둘이서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하루였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에 눈감고 귀 기울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분이 맑아지는 그런 인적

이 드문 어느 하루의 오후였다. 그렇게 한참을 앉았다가 우리 둘이는 고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하얀 모래밭을 걷게 되었는데 언니는 걸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들락거리는 바닷물과 이리저리 휘도는 바람과 사정없이 내리붓는 땀방울에 씻기고 깎이고 바랬을 볼품없는 나무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의 갤러리를 들르게 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허름했던 나무 조각이 작품이 되어 갤러리를 지키고 있지 않던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녀다. 하지만 가지지 않아 더욱 많이 가진 그녀이기도 하다. 그만큼 그녀는 욕심이 없는 '가난한 부자'인 까닭이다. 남들이 쉬이 가질 수 없는 넉넉하고 풍족한 마음의 소유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녀에게서는 어머니 품처럼 푸근함이 있는가 하면 한겨울 처마 밑의 고드름처럼 차갑고 냉정한 구석도 함께 있다. 그녀에게서는 알 수 없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 조용하면서도 활달하고 천상 여자 같으면서도 때로는 호탕한 남자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그 매력이 깊어 마력이 있는 아주 멋진 이슬 같은 노(露)처녀인 그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랑과 번역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Melody 인데 내귀에도 낮설지는 않다.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Godspeed your love to me

이 노래 가사는 번역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번역한다면 오히려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사랑은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치 않을 테니

말이다. 눈빛으로도 전달할 수 있을 터. 정녕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

가장 완벽한 번역은 무無번역이라 했던가. 원어를 직접 읽고 느끼는 거다. 그렇다고 직접 읽기가 말처럼 쉬운건가? 그렇지 않은 게다. 각자 읽은 방식이 다를 것이고 어휘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감수성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번역에도 왕도王道는 없는데, 오역과 초월번역의 경계는 희미하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16)

어려움이 따른다. 제목을 다는 일이 그중 하나다. 글이랍시고 귀한 지면에 질문을 올릴 적엔 더하다. 학술 논문이 아닐테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다.

= 어디 제목 뿐이라. 번역도 만만하지 않다. 번역이 어렵다는 말은 맞는 말일텐데, 아무리 훌륭한 번역이라 해도 번역은 번역인바, 완전할 수는 없을 터.

어릴 적 내 이야기이다. 중학교 적인데 영어 참고서 맨 앞장을 들춰다. 격언이 나와 있었다. 학문에는 왕도王道가 없다. 왕도라? 왕

만이 다니는 길인가. 왕만이 배우는 학문인가. 영어와 임금이 무슨 상관인가. 임금이 영어를 배웠나? 왕도를 임금의 도리라 해석했던 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

There is not royal road.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 유클리드의 말이라 했다. 차라리 지름길 이라면 어땠을까. 배움에는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이다.

초월번역. 원문을 번역할 때 곧이 곧대로 직역하기보다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바꾼 것의 미한단다. 의역을 넘어 예술성을

더한 번역이라는 거다. 초월번역도 분명 오역誤譯일텐데 수긍할 수는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초월번역이 있다. 원제는 고우스트인데, 한국판 제목은 사랑과 영혼이다. 분명 오역일텐데, 귀신인 Ghost라면 뭔가 섬하다. 사랑이 붙으며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달라 오히려 감미롭다. 영화엔 연인 둘이 붙어앉아도 자기를 빛는 장면도 있다. 과연 사랑과 영혼이 어울려 보인다.

'사랑과 영혼' 영화엔 흘러간 팝송도 등장한다. Unchained

PRESENTED BY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개천절



Korea Day!



TIME & PLACE

Friday, October 6, 2023
11 AM to 3 PM
MA State House - Great Hall



EVENT INFO

Celebrate Korean culture with us! There will be free food, music, and entertainment.



RSVP

<https://2023KACLKoreaDay.eventbrite.com>

SPONSER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AND REP. TACKEY CHAN



<https://kacl-ne.org/programs/korea-day>
newenglandkacl@gmail.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납니다, 어떡하죠?

[의사가 설명하는 약물 이야기]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박 역승교장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열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의사가 설명하는 약물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유아기의 약물치료이유를 키우는 부모는 대부분 열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열 나는 아이를 돌볼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다. 열이 날 때 손으로 피부를 만져서 뜨거울 때 열이 난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체온은 '체온계' 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대부분 의사는 정확한 직장 체온계 약 '38도 이상' 을 열(fever)로 생각하지만, 귀체온계 정도도 충분하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

치는 해열제 복용이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또는 이부프로펜(부루펜®) 시럽이 대표적이다. 처음 먹는 해열제라면 몸무게의 3분의 1 정도, 단위는 cc로 먹인다 생각하면 쉽다. 15kg 아이라면 5cc를 먹인다는 얘기다. 고열에 놀라 금방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주사제를 바로 쓰면 과도한 해열제로 저체온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해열제를 먹었다면, 최소 '한 시간 이상' 은 지켜보면서 미온수로 닦고 체온이 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사실 열이 나는 아이 대부분 해열제를 먹고 수분 섭취 및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큰 문제는 없다. 애들은 절대적인 열의 수치보다 '정신적-육체적 상태(performance)' 가 더 중요하다. 열이 나도 잘 먹고 잘 논다면 어느 정도 견디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 48시간 동안 38도 이상의 열, 3개월 미만의 영아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1~3세 시기를 '유아기(toddler)' 라 부른다. 이 시기 아이들은 액체를 마실 수 있고, 약간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다. 모든 새로운 것을 입으로 가지고 가는 특징이 있어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모든 약물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수납장' 에 보관하고, 애들이 열 수 없는 약병을 사용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세제, 락스 등)' 을 음식 통이나 음료수통에 보관하지 않는다. 맛이 좋지 않은 약들은 잼, 시럽, 과일, 음료 등과 섞어서 복용시킬 수 있다. '짧고 간결한 설명과 칭찬' 등은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간혹, "애가 해열제 시럽 한병을 다 마셨어요" 라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사실 시럽 제품은 약물 성분 함량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당장 위세척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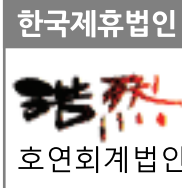
방문을 통해 약물 과량 복용에 의한 저체온, 간손상 등이 생기는지 세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납니다, 어떡하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Kpop MUSIC

**Entering FEE: \$100
Per Team or
Participant**

DANCE CONTEST

Grand Prize: \$1,000

1st Prize: \$500

2nd Prize: \$250

AUDITION: October 8th, 2023. 3 PM
Location: Korean Church of Boston.
ECC Chapel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FINAL: October 14th, 2023

@

K-Festival/Kimchi Festival
11 AM-3 PM

Location: Castle Island
2010 Day BLVD, Boston, MA 02127

1. Each participant or team will be voted at the Audition
2. 6 teams or contestant will be selected and do the Final stage at K-Festival
3. In the final stage, 50% from the Judge and 50% vote from the Audiences
4. The Grand Prize winner will perform at the Korean Cultural Event on Nov. 4th, 2023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Contact: Young Chang Email: tkdssm7@gmail.com Phone 978.994.0306
Nikkie Park Email: nikkiehpark@gmail.com Phone 617.447.0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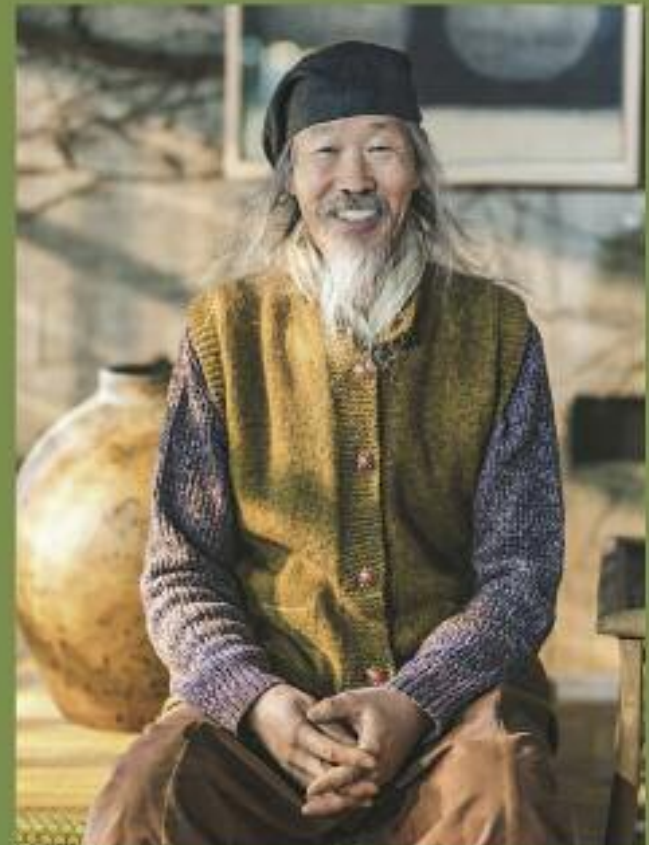
제 10회 한미예술협회 정기전

종이 뜨기
씨앗 뿌리기
환경 보살피기



한 지

이종국 작가
초대전



10월 7일-22일

Reception:
Saturday October 7, 3-5pm

Artist Talk:
Thursday, October 5, 7pm

Lexington Arts and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상세 정보
kcsboston.org



K-FESTIVAL



KIMCHI FESTIVAL

OCTOBER 14TH (SATURDAY) 2023

11 AM TO 3 PM

CASTLE ISLAND

ADDRESS: 2010 DAY BLVD.

BOSTON. MA 02127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Giant Bibimbap showcase

K-Pop 댄스 경연대회

K-pop Dance contest

사생대회/백일장

Art & essay contest

한복체험 사진관

Traditional korean clothing experience photo booth

김치 만들기

Kimchi making

태권도 시범

Taekwondo demonstration

제기차기,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윷놀이, 달고나 만들기, 오징어 게임, 등등

Korean Folk Games

푸짐한 상품과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e've got awesome prizes .

Come on over everyone !

추최:  매사추세츠 한인회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협찬:  보스턴총영사관,  보스턴 코리아, 한미 노인회, **BB.Q**

CHICKEN USA, CHOW BUS, 종로상회